

## 출 제 개 요 (사회계)

### ‘다문화 현상(문화적 이질성)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주제로 한 종합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 평가 - 교과서, 고전, 시사 등에서 통합적이고 다면적인 논술 능력 평가에 주안점

2015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고사 사회계열 문제는 사회계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사유를 기반으로, 특정 주제를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합적 사고능력과 이를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설명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출제했다. 이를 위해 제시문 분석을 바탕으로 이질적 문화에 대한 견해와 태도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했다. 문화적 이질성, 또는 다문화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로서 이를 충실히 학습한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제시문들로 구성했다.

<논제 I>에서는 제시문의 중심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비슷한 성격의 글을 분류하고 통일감 있게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출제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해서 상이한 태도를 갖는 세 부류를 묶을 수 있어야 한다. 즉, 제시문 [가]와 [마]는 각각 양성 평등의 입장에서 이슬람의 부르카 문화를 허용하지 않는 프랑스 당국의 태도 및 각자의 혈통과 문화를 용광로에 녹혀 새로운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미국의 동화주의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데 비해, 제시문 [나]와 [라]는 각각의 고유문화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관대하게 존중하는 다문화주의적 태도를 보여준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. 아울러 제시문 [다]가 열등한 생물에 대한 우등한 생물의 배타적인 승리가 인류의 우수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적 태도라는 것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.

<논제 II>에서는 문화적 주제 의식이나 정체성 없는 톨레랑스는 불가능하다는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, 다른 제시문의 논지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리 전개 의 기준이 되는 제시문 [바]의 대의를 충분히 분석하고 이를 각각의 제시문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. 타문화에 대해 극단적으로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제시문 [다]는 문화를 열등/우등의 이분법으로 나누고 자신들의 문화만을 절대화한다는 문제를 갖고 있음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. 제시문 [라]는 새로운 문화 정체성 확립 노력 없이 이질적인 두 개의 문화가 별개로 존재한다면 창조적인 문화융합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. 한편 각자의 문화 정체성을 버리고 완전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제시문 [마]는 그 새로운 문화가 하나의 주류문화로 작동하여 그렇지 못한 문화를 동화해야 하는 대상으로 만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.

<논제 III>에서는 사회계 학생들이 사회과학 문헌에서 자주 등장하는 통계 자료를 정확하게 이해할 뿐 아니라, 이로부터 다양한 추론을 전개함에 있어 수리적인 추상화 및 도식화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출제했다. 인문계 고등학교 과정에 포함된 원의 방정식과 확률 및 통계를 이해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풀이과정과 답을 도출할 수 있게 출제했다. 다만 확률 계산에 있어 원의 방정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응용능력을 갖추었는지가 관건일 것이다.

#### [제시문 출처]

- [가] 문화일보, <부인 부르카 착용 강요 모로코 남성 시민권 거부… 佛 끓는 ‘베일 금지 논란’>, 2010년 2월 3일.
- [나] 다문화일보, <안산다문화특구에 관광객 몰려온다>, 2014년 3월 31일, 김은미·양옥경·이해영, 『다문화사회, 한국』, 나남, 2009.
- [다] 히틀러, 『나의 투쟁』.
- [라] 신영복, <소피아 성당과 불루 모스크 편- 관용은 자기와 다른 것, 자기에게 없는 것에 대한 애정입니다>, 『고등학교 문학 II』, 좋은책신사고.
- [마] Wikipedia, <Melting pot>
- [바] 양승태, <톨레랑스, 차이성과 정체성, 민족 정체성, 그리고 21세기 한국의 민족주의>, 『정치사상연구』 13-1, 2007.